어떤 缺乏

鄭 震 權
(韓國體大, 國文學)

나는 대학을 나온 뒤 한 십 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또 그만한 세월을 문교부에서 편수 업무를 보았다. 그러는 동안에 내가 가지게 된 꿈은 중등학교의 교장이 되는 것이었다. 근엄한 교장이 아니라 멋진 교장, 어린 학생들에게는 이따금 감동적인 이야기도 들려 주고, 방과 후에는 선생님들과 토론도 하고 운동도 하며 막걸리도 나누고, 다들 돌아가고 나면 교장실에 혼자 앉아 생각도 하고 글도 쓰는, 나는 이런 교장을 늘 꿈꾸었다. 그러나 팔자에 교장되는 복은 없는지 韓國體育大學의 교양 과정 선생으로 오게 되었다.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하면서 교수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나의 진로를 염려해 준 여러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해 마지않았다. 그러나 교장의 꿈을 포기할 때 그리고 이 학교에 나의 전공 학과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적잖이 서운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후 어언 칠 년의 세월이 흘렀고 학교의 이 구석 저 구석에 정도 많이 들었다.

내가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國語, 漢文, 文章論 같은 것들이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그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운동에 열중해 왔기 때문에 스포츠 이외의 다른 문화에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詩를 읽고 隨筆을 읽고 小說을 읽게 한다. 漢文古典의 유명한 구절도 외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아름다운 漢詩도 외게 한다. 또 說明하는 방법, 論證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그런 방법으로 글도 써 보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칠 년을 보내는 동안 나는 교장의 꿈을 포기할 때 느꼈던 서운함, 전공 학과가 없어서 느꼈던 서운함도 모두 잊고 지낸 듯하다. 아니, 나의 짧은 지식과 빈약한 경험으로나마 젊은이들을 가르치며 산다는 것이 그지없이 고맙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이따금 또 다른 懷疑가 일기도 한다. 내가 정말 교수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어느 의사의 글에 아래와 같은 대목이 있었다.

> 우리 형제들이 혹시 병으로 눕게 되면, 어머니는 (중략) 우리들의 아픈 배나 머리를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어 주셨던 것이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아픈 배나 머리가 씻은 듯이 나았던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머니의 손을 약손이라고 불렀다. 나는 문득 내 손을 펼쳐 보았다. 진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푹 찔렀다. 현대의 약손이라고 일컫는 의사의 손이다. 그러나 미끈하고 차가운 내 손에는 아무래도

무엇인가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는 것만 같았다.

이런 대목이었다. 懷疑가 일면 이 글이 떠오른다.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나에게도 중요한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대학 1학년 때의 일이다. 노교수 한 분이 계셨다. 크신 키, 수척하신 몸, 눈빛은 언제나 온화하셨지만 쓸쓸한 그늘이 져 있었다. 선생님은 음성이 우람하셨다. 그러나 말씀은 늘 나직하셨다.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선생님 보시기에는 별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니었던 듯하다. 어느 날 선생님은 詩 한 편을 칠판에 쓰시고 다음과 같은 뜻의 말씀을 하셨다.

也想不相思 可免相思苦
幾次細思量 情願相思苦

"이건 중국의 胡適이 쓴 건데, 대강의 뜻은 「생각컨대 우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사랑의 이 괴로움을 면할 수도 있으련만/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거듭해 보아도/나는 참으로 원하였네, 사랑하는 괴로움을」, 이런건데 이건 무슨 연애하는 詩가 아니야. 胡適이 그의 조국인 중국을 사랑하는 노래야. 어떤 괴로움이 따른다 해도 조국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노래야. 남들은 그 정신이 이러한데, 편안히 앉아서 공부만 해도 애국이 되는 것을 그것도 못 하나?"

선생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창 밖 먼 하늘을 쓸쓸히 바라보셨다. 혹 만주 벌판이 눈에 보이신 걸까? 선생님은 독립군, 靑山里 싸움의 용사이셨다. 우리는 숙연한 마음으로 모두들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의 청년 시절은 민족의 암담한 시련기였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선생님은 분연히 고향을 떠나셨다. 그리하여 때로는 총을 잡고 만주 벌판을 달리시고, 때로는 間島와 五山에서 가르치시다가 감옥에도 드시었다. 그리고 민족에 대한 마지막 봉사로 우리를 가르치신 것이다. 선생님은 퍽 가난하게 사셨다. 입으시는 것과 드시는 것 무엇 하나 변변한 것이 없고, 사시는 집도 꾸불꾸불 좁은 골목을 한참이나 올라간 자리에 열 평이나 될까? 그러나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 이외에 달리 욕심내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 선생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늘 의자에 앉아 말씀을 하셨다. 젊으실 때 왜적과 싸우시랴, 옥고를 치르시랴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 과거의 일로 잊으신 듯 그 고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다. 우리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숙연해지곤 했던 것은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이처럼 고결한 삶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도 胡適의 詩를 칠판에 쓰고 풀이할 줄 안다. 어쩌면 선생님보다 더 찬란한 어휘로 애국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설령 나를 잘 따른다 할지라도 내 말을 듣고 숙연한 마음을 가질 학생은 있을 것같지 않다. 아무 감동도 줄 수 없는 내 말, 나는 날마다 言語의 假花 조각이나 흩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선생님은 혼자 공부하신 분이다. 서울의 어느 중학교를 몇 달 다니신 것이 학력의 전부라고 들었다. 선생님이 연구하신 것은 古代國語 그리고 古代詩歌의 해석에 관해서도 독창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셨다. 앞 사람의 연구가 별로 없는 분야였기 때문에 선생님의 연구는 참으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선생님은 이런 고심 속에 쌓으신 당신의 학문을 우리에게 열심히 가르치셨다. 그 열심 속에는 우리가 무엇 하나라도 바르게 깨닫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염원이 들어 있었다. 선생님은 말씀을 하시다가 꼭 질문을 하셨다. 어쩌다 대답을 잘 한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은 얼굴이 환해지셨다. 그러나 대답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물끄러미 바라보셨다. 나는 선생님의 그런 시선 앞에 고개

를 떨구고, 종아리를 맞는 것보다 더 아픈 무엇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을 느낀 일이 있다. 어느 해던가 선생님이 우리 학년의 담임 교수가 되신 일이 있다. 그 때, 다음 학기에 쓸 교재 하나를 미국으로 주문하게 되었는데 책 값이 비싸서 돈이 잘 걷히지가 않았다. 이를 아신 선생님은 어느 날 책 값 걷는 일을 맡은 나를 부르셨다. 그 책은 선생님 시간에 쓸 교재가 아니었다. 그러나 선생님은 나직하면서도 대단히 노하신 음성으로 "책 값이 비싸서 책을 못 산다? 당구 치고 술 먹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런 태도로 학문을 하겠다고 나와 앉았는가?" 하셨다.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선배들의 말에 따르면, 선생님은 만주에서 왜적과 싸우실 때에도 일본 사람 누군가의 言語學 책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다 한다. 나는 선생님을 댁으로 몇 번 찾아뵌 일이 있다. 졸업 후 어느 정초의 일이다. 선생님은 중풍으로 몸이 퍽 불편하셨다. 나는 나 때문에 선생님이 눕지 못하시는 것이 죄송스러워 세배만 드리고 곧 일어날 생각이었다. 그러나 선생님은 큰 백지에 붓으로 그린 도표를 펼쳐 놓으시고 鄕歌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셨다. 나는 또 마음 속으로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내가 이렇게 선생님 앞에 고개를 숙이곤 했던 것은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선생님의 뜨거운 정성 때문일 것이다. 나도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잘못하면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있다. 책을 사라고 강권하기도 한다. 한 달에 전공 서적 한 권씩만 사도 4년이면 마흔 여덟 권이 아니냐는 말도 한다. 어쩌다 연구실로 찾아오는 학생이 있으면 그에게 유용하리라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들려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 하나 내 앞에 참으로 고개를 숙일 학생은 있을 것같지 않다. 아무 뜨거움도 없는 내 몸, 종 치면 강의실에 들어가고 끝나면 연구실로 돌아오고. 나는 다만 선생 흉내나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결한 삶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숙연케 하신 선생님,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뜨거운 정성으로 내가 늘 고개를 숙여야 했던 선생님, 나는 우둔하여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잡지는 못했으나, 이런 선생님을 모시고 대학 시절을 보낸 것은 언제 생각해도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이 학생들은 먼 훗날 나를 어떤 교수로 기억할까? 言語의 假花 조각, 선생 흉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지만, 나를 가르쳐 주신 몇 분 옛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다. 내가 교장이 되었어도 내 삶이 고결하지 못하매 어린 학생들이 내 말에 감동할 리 없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내 정성이 뜨겁지 못하매 선생님들이 진지한 태도로 토론에 임할 리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멋진 교장이란 한낱 환상, 아무 생명도 없는 말이나 지루하게 늘어 놓으면서 나는 다만 교장 흉내나 내는 사람에 불과할 것이다. 때로는 이러한 결핍을 채워 보려 안간힘을 쓰기도 하지만, 허탈해질 때가 많다. ※